

전북문화예술 구심점 역할 '집중'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 기획사업 등 올해 운영계획 밝혀

스틸 텀 드럼 · 보타니컬 · 민화 등 다양한 장르 프로그램 운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2024년 운영계획을 19일 밝혔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특별 공연·전시 운영 △동학농민혁명 130주년기념 소리극·소리전당 브랜드공연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 단체 공연 기회 제공 △지역문화예술인 공공예술 프로젝트 강화 △취업실무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 등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소리극 브랜드 '태권 유랑단 녹두' 공연과, 환상의 동화속 나라로 떠나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전막발레,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스 특별전' 등 다채로운 공연·전시 기획했다.

더불어 전담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ESG 프로젝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ESG 시대를 겨냥한 환경 캠페인성 너비별 퍼포먼스를 제작하고 환경의 소중함과 재활용 도구를 활용한 문화예술을 실현해 한층 더 투명하고 친환경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문객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ON/OFF LINE을 통한 이벤트로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하고, 기획공연 외 대관공연도 기획사와 협업체 전담회원에 한해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전당의 SNS 홍보 채널과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전당의 공연·전시, 할인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EW아트쇼>이란 통합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사업은 올해 'III 예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술, 대중, 지역'이라는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공연(62건)과 전시(3건), 예술교육(2건)이란 큰 틀 속에 색선별로 나눠 총 67건(90회)을 진행한다.

공연의 경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는 <거장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소개하는 <기획자의 눈>, 지역예술단체와의 협업 및 신진 발굴 프로젝트인 <소리연리지>, 인지도와 예술성을 겸비한 <스튜디오원더>,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해 트렌디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는 <아트스튜디오 소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누리>, 도내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해 공연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등을 준비했다.

전당의 대표적인 On-tact 프로그램인 <파이팅 콘서트>와 도내 순수장르 활성화를 위한 <STAR시리즈>, 도내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을 찾아가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전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버스킹> 등은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했다. 전시는 대관과 기획의 균형을 고려하고 관객 눈높이에 맞춘 테마전시와 시즌전시(여름방학 특별전)를 유지한다.

7명 작가들이 선사하는 청년작가 아외조각전 II <7mg : 칠링>을 시작으로 6~10월에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알머스의 삶을 회고하는 <에바알머스 : 안단도> 특별전을 선보인다. 예술교육은 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생애주기형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소리타? 놀이터!', '아트쇼 탐험대', '예술놀이터 SORI',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상상극장 SORI 4.0', '발레로 쓰는 자서전', '어른들의 문화놀이터 See?' 등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으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와 전북문화예술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이 무주문화원 문화학교를 통해 군민의 생산적인 여가생활을 가능케 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 상반기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은 이달 28일까지 모집할 계획으로, 수강 신청은 무주문화원 회원가입(회비 2만 원) 후 무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접수(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강좌별 수강료 3만원(재료비 별도, 본인 부담)이다.

2024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수업은 오는 3월 11일부터 상반기 동안 15회 차(화·수·목)에 걸쳐 진행되며 '스틸 텀 드럼'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진'과 '통기타', '책 읽는 사람들', '고선아류 입춤', '민화', '거문고', '보타니컬', '경기민요 & 생황민요', '서예', '가야금 & 가야금 병창', '바이올린' 등 음악과 미술, 독서, 사진 분야 12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다년간 관련 장르 및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문화학교에서 도전하는 즐거움, 배우는 재미, 성취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라"고 전했다.

2024 상반기 문화학교 수강을 희망하는 무주군민은 무주문화원 사무국(063-324-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를 초청해 '해주비빔밥, 통일을 비비다'를 주제로 북한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제시립도서관, 소설 '아리랑' 독서단 참여자 모집

29일까지 선착순... 책 읽기 · 토론 · 역사적인 현장 탐방 등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은 지역을 배우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조정래 작가의 대표소설 '아리랑'(12권) 함께 읽기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선착순(25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년 뜨거운 관심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설 '아리랑' 함께 읽기는 오는 3월 6일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김연철(단국대학교 초빙 교

수) 전문 강사의 독서 가이드 강연을 접목한 비경쟁 독서 토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아리랑 문화관, 아리랑 문화마을, 군산, 정읍) 탐방 등 15회로 구성됐다.

이번 독서단은 김제 정신이 살아있는 12권의 '아리랑'을 석 달여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책 읽기와 토론, 역사적인 현장 탐방을 통해 김제의 역사를 바로 알고 김제시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녁 시간으로 편성돼 주간에 강좌를 참

여하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아리랑 함께 읽기 독서단'은 '나만의 밑줄 문장 공유 및 발표', '인상 깊은 아리랑 속 문장 낭독해 보기', '아리랑 타임캡슐 만들기' 등 아리랑 소설을 읽으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내용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수 김제시장은 "김제시와 소설 아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아리랑 독서단을 통해 우리 지역 애향심이 커져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gjl.gimje.go.kr>) 또는 전화(540-4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민예술촌, 상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정읍시 지역 문화시설인 '정읍시민예술촌'에서 오는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등공예(라탄공예), 도자기핸드페인팅,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아코디언, 기타, 드럼(2개반), 키보드 총 8개 분야 9개 과정이다.

각 과정별 모집정원은 10명이며, 접수희망자는 시민예술촌(정읍 고음플러스센터 내 지하 1층)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과정별로 1주일에 2회(회당 2시간)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과 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향은 시민예술촌 사무실(063-539-517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예술촌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하는 시민예술촌은 연습실 4실, 발표실 1실 등 시설을 갖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행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음식 통한 남북 화합의 장 마련

한국전통문화전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초청 행사 가져

한국전통문화전당(김도영 원장)이 음식을 통한 남북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9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를 초청해 '해주비빔밥, 통일을 비비다'를 주제로 북한 음식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북한 음식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 북한 음식문화의 이해와 '화합,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임원·문화복지부·자문위원·탈북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체험을 진행한 한식향의센터 담당자는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를 함께 섞어 먹는 음식으로 '조화, 함께, 융합, 통섭'의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맛의 교장 전주에서 비빔밥을 매개로 북한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뜻깊었다"며 "이번 행사가 남북 화합이 하나 돼 평화통일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 한식향의센터에서는 전주비빔밥, 살강정 등 다양한 조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